

□ 2021.5.19.(수) 10:19:45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腾讯新闻)

较上日+0	较上日+235	较上日+258	较上日+13	较上日+14	较上日+2
35	1497	105044	345	5890	4860
本土现有确诊	现有确诊②	累计确诊	无症状感染者	境外输入	累计死亡

○ 5월 18일 0시-24시 31개 省 확진자 총 14건, 모두 해외유입(상하이 9건, 산시(陕西) 2건, 장수 1건, 후베이 1건, 광둥 1건)

□ 2021.5.10.(월)~5.19.(수)

○ 中 신규 확진자 14명 증가, 모두 해외유입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18일 0시~24시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4명(모두 해외유입), 신규 퇴원 환자가 13명, 사망자가 0명, 의심 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환자는 296명(해외유입 261명), 누적 신고 확진자는 9만 908명(해외유입 5890명), 누적 퇴원 환자는 8만 5976명(해외유입 5629명), 누적 사망자는 4636명(해외유입 0명), 의심 환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당일 본토에서 코로나19 신규 무증상 감염자가 13명(해외유입 13명)으로 집계됐으며 3명은 확진 환자로 진단받았다. 현재 의학관찰 받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는 345명(해외유입 327명)으로 통계됐다.

위건위는 본토 이외 홍콩특별행정구에서 1만 1826명(퇴원 환자 1만 1535명, 사망자 210명 포함),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50명(퇴원 환자 49명 포함), 타이완 지역에서 2260명(퇴원 환자 1127명, 사망자 14명 포함)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다고 전했다.(卫健委, 2021.5.19)

○ 가우리 WHO 중국대표: WHO 긴급사용인증에 통과된 중국산 백신 글로벌 공급량의 뚜렷한 증가에 기희 마련

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시노팜(Sinopharm) 산하 베이징바이오제품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불활성화 백신이 WHO의 긴급사용인증에 정식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이정표적인 성취이라고 가우리(高力) WHO 중국대표가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중국산 백신이 이와 같은 인정을 받기 바란다” 며 가우리 대표는 이것은 중국이 자신의 개발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사업에 큰 기여를 하겠다는 약속이고 글로벌 공공보건제품 공급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가우리 대표는 많은 주목을 받았던 WHO 긴급사용인증은 중국산 백신의 품질이 좋고, 사용이 안전하고, 효과에 대한 WHO의 요구에 부합되며 글로벌 팬데믹에 대응하는 중요한 공구로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5월1일까지 글로벌적으로 10억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고소득 국가에 집중되었고 광범한 중저소득 국가는 여전히 백신이 부족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WHO 긴급사용인증에 통과된 백신 한가지를 제외하고 현재 여러 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가우리 대표는 “오늘의 이정표적인 성취에 격려 받은 기타 생산업체가 시노팜에 이어 글로벌 백신 물량 확보에 힘을 이바지하게 되고 글로벌 백신공급과 백신공평에 더욱 큰 기여를 하도록 중국에 동력을 부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新华社, 2021.5.10.)